

내포지역 海灣 개척의 전개와 경관변화의 사회적 주체

전 종 한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서론

경지 개간 과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색을 반영하고 당대의 자연 환경 극복 기술,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제도적 여건 변화, 국가 중심지와 사회·정치적 구심력 및 원심력 등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되므로 형태적 범주 내지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지 개간에 관여하는 이들 다양한 요소의 지역적 차별성을 염두에 두는 시각은 보다 넓은 스케일의 공간에 포섭된 일부로서 연구 지역의 경지 개간이 갖는 보편성과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지 개간 및 소유의 문제는 특정 시기의 지배적 사회집단이 형성, 존속, 재편하는 데 일차적으로 기여하는 물질적 동인이 되며, 반대로 사회적 맥락이 경지 개간 및 경관 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맺기도 한다. 경지 개척의 문제가 사회적 차원의 변화와 연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며, 이 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지 개간 및 경관 변화를 그 사회적 주체와 관련시키는 작업, 즉 社會的 過程에 관한 탐구가 이 분야에서 절실하다.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내포 지역의 경지 개간과 경관 변화에 관해 접근하려고 한다. 內浦地域이란 「택리지」에서 그 영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충청도 서북부의 가야산 주변 군현들을 일컫는데 지형적으로는 오늘날의 태안반도 일대와 거의 중첩하는 범위이다. 「內浦」라는 지명은 그 공간 스케일이 비교적 대단위라는 면에서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시각에서 명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 특성에 어원을 둔 지명이므로 정확한 공간적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內浦 즉 ‘안 개’라는 단어 의미가 보여주듯이 이 지역이 갖는 자연지리적 특징은 분명한데, 그것은 크고 작은 海灣과 感潮河川 및 浦로 대변된다. 이 점은 여러 가지 자연지리적 요소 중에서도 해만, 특히 해만 개척의 과정이 이 지역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지역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는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려 하며 우선 해만 개척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별 해안선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해만 개척의 형태적 측면을 포착할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형태적 변화의 급변기에 주목하면서 어떤 사회집단들에 의해 해만 개척과 토지 소유가 주도되었는가, 해만이라는 공간을 점유했던 사회집단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탐구함으로써 경지 개간의 문제를 社會地理的 脈絡에서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한편 연구 지역인 가로림만 일대는 내포의 자연지리적 특징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내포 지역의 지리적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의 대규모 방조제 축조 사업이 미치지 않은 몇 안되는 곳이므로 인간 거주지로서 내포 지역의 생태적 환경 및 해만 개척과 관련된 과거의 경관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복원할 수 있다. 필자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수 차례의 현지 답사와 향토사가 및 지역민과의 면담, 문헌 분석을 통해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과 경관 변화, 사회적 변동에 있어 공히 매우 중요한 전환기가 바로 일제 시기 전

후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점은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이며, 연구 주제가 갖는 歷史地理的 變遷의 선후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조선후기, 일제시기, 그리고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기를 수직적 횡단면들로서 상정하기로 한다.

2. 해만 개척의 역사적 배경과 추이

일반적으로 조선시기의 해만 개척은 16세기 이후 군사력이나 대규모 인력 동원의 권력을 지닌 宰相家, 戚里家, 王子家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견해(이태진, 1983)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해만 개척이 본격화된 시기는 15세기 이전까지 소급될 수도 있는 한편, 지역적 전개의 시점과 사회적 주체는 전국적으로 매우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포 지역 가로림만 일대에 있어서는 중·소규모의 해택 및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여(<그림 1>참조) 형태상 언전 개간이 활발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견해와 달리 조선말기까지 堰畝 개간을 통한 해만 개척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일대의 자연지리적 특성 및 인간 거주지로서의 생태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3. 해만 개척의 국지적 전개

조선시기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과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 전국적인 경향과 달리 「경지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한가지는 본격적인 개간 시기가 「일제시기」로서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이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관련이 깊다. 소규모 해만과 간석지가 널리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담수 확보의 어려움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을 「해만 개척=농경지화」의 進路가 아닌 「해만 개척=염전화」로 유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만, 이 경우 염전화란 일제시기 이전까지 천일제염에 의한 염전이 아닌 煮鹽을 위한 밧 시설 및 밧밭의 분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조선말기까지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은 일부 소규모의 것을 제외하면 과거의 해안선을 대체로 유지한 채 국가나 개인에 의한 소금 생산지로서의 역할이 주된 기능이였다.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소규모 해만을 중심으로 하여 해안선에 인접한 내륙 쪽으로는 과거 어느 시기부터인가 자연 섰에 의존하여 堰畝으로의 개간이 진척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 대부분은 流水 공급이 지속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염해의 피해가 속출하거나 일정한 수확량을 보장받을 수 없는 天水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산반도의 경우 가로림만 연안을 따라 분포하는 陸畝 중에는 오늘날까지도 천수담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러한 생태적 여건 하에서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에서는 경지화로 유도하는 動因보다 염전화로의 作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이 점은 조선시기 전체에 걸쳐 풍부한 담수 공급을 배경으로 해만 개척의 방향이 둔전이나 궁방전 등 경지화를 향해 진행될 수 있었던 내포 지역 아산만 일대의 상황과 대조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일제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표 1>에서 <표 3>까지는 일제시기 전반 가로림만 일대에서 수행된 해만 매립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도표를 통해서 당시 출신지나 성분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본격적인 해만 개척이 진행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표 1>을 보면 1927년 현재 가로림만 연안에서의 매립 준공 인가자는 2명이 있었는데 서산군 관내의 전체 인가자 76명중 유일하게 外地人들이었다. 당시 서산군내 그 밖의 지역에서 매립된 74건의 주체가 모두 각 面 官內的 지역 주민이었다는 점과 대비되는 사실이다. 적어도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이 일제시기 이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매립에 적절한 생태적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아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통계지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말해준다. 당시 서산군 관내에 허가된 10정보 이상의 대규모 매립 사업은 모두 31건이었었는데 이 중 4건(12.9%)이 가로림만에 해당했

다. 전체 31건중 약 54.8%(17건)가 경기, 전라, 경상도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가로림만 연안에서 이루어진 4건의 매립 주체는 외지인의 비중이 더욱 높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4건중 梨北面에서 주관한 한 곳을 제외하면 세 곳이 모두 타지역 주민, 특히 日本人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표 3>에서는 10정보 이하의 소규모 매립 면허지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내 총 143건중 가로림만 연안의 비중이 29건(20.3%)을 차지하고 있다. 가로림만 연안에서 진행된 매립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매립지의 비중이 대규모 매립지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점은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 많은 소규모 해만이 경지화에 적합한 공간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미개척지로 존속해왔음을 뜻한다. 한편 29건 모두 서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외지인의 경우와 달리 지역민들이 소규모 매립 사업에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림 3>은 일제시기 이후 1990년대까지의 경지 개간과 해안선 변화를 복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1920년대 해안선과 비교하며 살펴볼 때, 일제시기로부터 1950년대까지는 주로 가로림만 동서 양안에서 중규모 이상의 해만 매립이 진행되었고, 1960년대이후로는 가로림만 남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만 개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중규모 이상의 해만 개척이 가능했던 것은 다분히 충분한 담수 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제시기로부터 195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저수 시설과 지하수 개발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이다. 당시의 담수 확보 방법은 주로 官이나 일본인 주도 하에 진행된 저수지 축조 및 浦江 사업이었고, 1960년대 이후의 그것은 앞 세대에서 이어져 온 저수지와 함께 주로 지하수 활용에 의존하였다. 196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기를 지나는 동안, 포강은 그 기능이 지하수 펌프 시설에 의해 대체되면서 이 일대의 경관으로부터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상의 사실들로부터 일제시기 가로림만 연안의 해만 개척이 갖는 특징을 추출해보면, 첫째 外人(특히 경기도 거주자)에 의해 해만 개척이 시작되었다는 점, 둘째 10町步(약 30,000평) 이상 대규모의 매립은 日本人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 셋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개척에 참여했다는 점, 넷째 해만 개척이 염전화로부터 전환하여 경지화로의 방향 즉 畚으로의 개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지인들은 대체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圖面 상에서 해만의 형태적 측면을 매립 사업 판단의 주된 근거로 하여 입지 선정에 임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이나 생태적 조건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실제 매립 사업 진행 도중에 투입 자본을 회수하지 못한 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제시기에 전개된 경지화로의 전환은 광복 이후에도 계속되어 1950년대 이후 가로림만 일대의 해만 개척은 매립에 의한 경지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시기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해만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鹽田이 꾸준히 맥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오히려 광복 후에는 염전의 분포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이는 다분히 가로림만 일대의 지역 특수적인 자연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것의 영향에 따른 토지 이용의 地理的 長期持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일제시기 초반부터는 煮鹽을 대체하는 天日製鹽 방식이 보급되었는데, 천일제염에 의한 생산량은 1921년 국내 총 염생산량의 42.1%였던 것이 1939년에는 86.4%로 크게 증가하였다. 천일제염에 의한 소금 생산을 위해서는 이전의 煮鹽式 소금 생산과는 달리 넓고 평평한 간석지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소금 생산의 공간적 거점은 조선시기의 소규모 해만 들로부터 벗어나 보다 광활한 간석지가 전개된 큰 규모의 해만으로 이동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산반도 및 이원반도의 북쪽 말단부는 천일제염을 위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다. 청정도가 높은 해수 여건, 염전 조성에 편리한 광대하고 저평한 간석지 분포,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한 미개척지 잔존 등은 천일제염의 입지를 유인한 주요 흡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해만에서의 생태적 적응 전략과 대지주의 등장

<표 5>는 1929년 서산군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던 대지주 명부이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청주한씨는 17세기 초반에 출현하여 조선말기까지 서산 지방의 주요 사족으로 성장한 성씨이다. 그러나 그 외의 성씨는 그렇지 않다. 수원백씨의 경우 19세기말 처음으로 단 1명의 생원·진사를 배출한 것으로 보아 서산 지방의 전통적 사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주이씨나 고성이씨는 조선시기의 지역 사료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이 당시에 대지주로서 처음 두각을 나타낸 전혀 새로운 사회집단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5>가 서산군 관내 거주자 중의 대지주 명단을 조사한 것이라면, <표 6>은 서산군 관내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대지주 명부라 할 수 있다. 이 표는 1930년에 조사된 것으로서, 표에 나타난 인물들은 당시 서산군 관내에 토지 면적 100町步 이상의 소유지를 두었던 대지주들이다. 등재된 인물들의 本貫 배경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앞에서 언급한 고성이씨, 경주이씨 등의 신흥 사회집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공우와 이시우는 경주이씨이며 이기석, 이성진, 이기승은 고성이씨로 확인되어 <표 5>에서 살펴본 대지주 가문과 동일하였다.

<표 6>에 제시된 인물 중에는 경주김씨나 청주한씨, 전주이씨 같은 전통적 사족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서산군 전체 대지주 소유 총면적(5,395町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3%(879町步)에 불과했다. 반면 신흥 대지주 집단의 경우, 대표적인 경주이씨와 고성이씨의 소유 면적만 합하여도 전체의 과반수인 51.4%에 달한다. 地目別 최대 지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田畝 소유 최대 지주 이기석, 전답 이외의 기타 地目(삼림지 위주) 소유 최대 지주 이기승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들에게 대토지 소유가 가능했던 일차적 배경은 염업에 의한 자본 축적에 있었다.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들은 해만 개간을 주도했으며 서산 지방의 광활한 삼림지를 매입하여 적극 개간함으로써 일제시기 이후 경관 변화의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서 부상하였다.

<표 5>와 <표 6>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제시기 전반, 서산 지방의 전통적 권력 집단 즉 조선시기의 사족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사회집단이 출현했다는 점, 둘째, 이들 신흥 사회집단은 田畝와 森林地 등 모든 地目에서의 대토지 소유자로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염업을 통한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경지 개간과 삼림지 벌채의 사회적 주체로 부상했다는 점, 넷째, 이들은 일제시기를 지나면서 經濟的 支配集團으로서의 존재를 넘어 政治·社會的 權力集團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충분히 드러난 바와 같이 고성이씨와 경주이씨이다. 과연, 이들 신흥 사회집단은 대지주로 성장하기 전인 조선시기에 어떠한 신분의 존재였을까? 당초 이들의 생태적 본거지는 어디였으며, 어떤 사회·경제적 신분의 사람들이었고, 어떠한 지역적 조건을 배경으로하여 대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일제시기 대지주 명부에서 나타난 경주이씨와 고성이씨 가문은 조선후기까지만하여도 경제적 말단 계급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가문 공히 내포 지역의 가로림만 혹은 천수만 연안에서 소금 생산에 종사한 노동자, 즉 鹽漢 출신이었다. 鹽漢은 조선시기에 鹽干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들의 신분은 '身良役賤'으로 규정되었다(유승원, 1979; 이찬희, 1984). 사회적으로는 분명한 良人이었으나 노동의 고된 정도에 있어서는 賤役으로 인식될 만큼, 사회·경제적 하층부의 양인들이 종사한 직업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17세기이후 해만에서 소금 생산을 담당했던 鹽戶들은 국가 혹은 권세가들에게 鹽稅를 바치면서 생활하였는데, 부과되는 세금은 시기를 막론하고 과중하였다(박평식, 1997). 이와 함께, 조선시기 황해안의 일반적인 소금 생산 방식이었던 자염업에 있어서 소요되는 노동은 대단히 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생계 여건은 매우 열악하였고 이에 따라 鹽役은 천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함께 가로림만 연안의 지역적 조건은 이 일대에 거주하던 鹽漢의 경제력을 크게 증대시켜 주었다. 일제시기의 공유 수면 매

립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궁방이나 권세가들의 존재가 뚜렷치 않았던 가로림만 일대의 서산과 태안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해안들이 공유지로서 인식, 존속되었다. 설령 국지적으로 궁방이나 권세가들에 의한 염전 점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통감부 시기(1906-1910)를 지나면서 궁방이 혁파되었으므로 이 같은 정치적 변동 속에서 염한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크게 해소되었거나 적어도 염한들의 수익 추구가 비교적 자유로워졌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한말, 경주이씨와 고성이씨 역시 그러한 공유지들 중 하나에서 각각 소금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로림만 연안은 해상로를 통해 인천 및 한양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았는데, 수많은 사설 연안 항로 및 구한말과 일제시기 동안의 정기 항로 개설은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수도권외의 의미를 소금 소비 시장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기 京江의 소금집산지였던 마포에의 소금 공급은 경기도 남양 염과 함께 충청도 서산 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승제, 1956, 149). 바로 그 서산 염의 실체 중에 경주이씨와 고성이씨가 있었다. 서산의 경주이씨와 고성이씨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중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금 판매와 상품 교역을 통해 막대한 재력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고성이씨의 경우 소금 생산 및 직교역은 이들의 자본 축적의 근간을 이루었던 방식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성이씨가 최초로 정착하여 자염업을 시작했던 마을 지명이 경주이씨의 그것과 유사하게 環洞(<그림 2> 참조)이라 하여 고리 모양의 소규모 해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고성이씨는 조선중기 李福齡이라는 인물이 이괄(1587-1624)의 난 직후 종족에 禍가 미칠 것을 우려해 母親인 진주류씨의 본관을 따서 진주이씨로 본관명을 바꾸고 세거지에서의 族籍을 끊고 해미면에 隱居定着하였다. 그 후 그의 5代孫 이운신은 해미로부터 태안의 환동으로 이주하였다. 이회열(1831-1918, 이운신의 6代孫)의 行狀에 의하면 환동에서의 생활은 빈곤하였으며, 이회열은 42세때에 이 곳 환동에 인접한 귀실 마을로 分家하여 최초로 煮鹽業을 시작하게 된다.

이회열은 3斗落(약600평)의 유산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었지만 차후 염업으로 전환하였다. 처음에는 가족 노동력에 의지하여 직접 소금 생산에 임했으나 점차 고용인을 둘 수 있는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염업을 시작한지 8, 9년만에 주변의 염전을 추가로 매입하여 10여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연간 소금 생산량은 수 천석에 달했으며 경주이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금의 직교역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천 혹은 한양과 지방을 왕래하며 목골과 布의 교역에까지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였다. 일제시기 대지주 명부에 등장하는 이기석과 이기승은 바로 그의 아들이고 이창진, 이성진, 이택진은 손자들이다(<그림 5> 의 사진 참조). 이 중 이기승은 1913년 민족 자본에 의한 한국 최초의 지방 은행인 호서은행 창립 멤버로 가담하였을 만큼 재력이 막대하였다.

특히, 고성이씨의 경제력 향상은 정치·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수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한말, 이회열의 長男 이기석은 서산, 음성, 태안, 고창군의 군수를 역임하였고, 三男 이기상은 서산군수와 해미군수를 지냈다. 이들이 한미한 鹽漢 가문 출신으로서 實職으로 지방관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풍부한 재력의 사회 환원에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보상 차원에서 관직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구한말 전라도 나주 지방의 밀양박씨 박재규는 1903년 진흥미 2백석을 내어 빈민을 구제하였는데 이 사실이 군수를 통해 관찰사에게 상신되어 그 포상으로 장흥군수에 임명된 바 있다(박찬승, 1993, 216). 실제로, 이회열은 태안의 백화산 남쪽 옥하리에 ‘화양의숙’이라는 사설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고, 1901년부터 1913년까지는 빈민을 위해 쌀 일백석을 방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구제 사업에도 힘썼다. 오늘날 태안읍 평천리의 후생촌 마을은 이회열의 구제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이유로 명명된 마을이며, 1928 서산군 각 면장들의 발의로 이곳에 이회열 및 그 자손들을 위한 공덕비가 세워져 현재 남아있다. 따라서, 이회열 자신이나 이기석, 이기상의 관직 진출은 아마도 이 같은 행적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포상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 후 이기석의 次男 이영진은 일본 유학후 초대 충청남도 도지사과 제6대 국회의원을 역임함으로써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이 같은 사회·정치적 지위의 상승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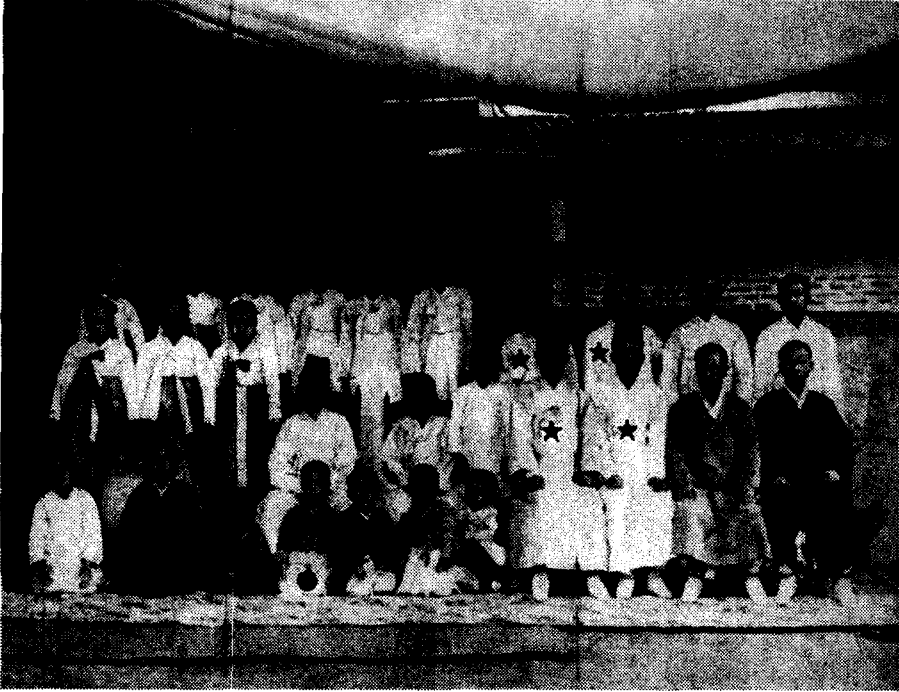


그림 5. 내포 지역의 대지주: 서산의 고성이씨 이회열 일가
(1913년경 촬영, 장소: 태안의 환동 家宅)

★는 일제시기 서산군 대지주 명부(1929, 1930)에 등재된 바 각각 100町步(300,000평) 이상씩의 대토지 소유자들이다[사진에서 중앙의 의자에 앉은 인물이 이회열(좌)과 그의 配 경주씨(우)이다. ★중 뒷 열의 좌측이 이창진, 우측이 이성진, 앞 열의 좌측이 이기석, 가운데가 이기훈, 우측이 이기승(호서은행 창립 멤버)이며, ●는 뒷날 초대 충남도지사를 역임하는 이영진(1908년생)이다]. 이들의 父 이회열은 海灣에서의 煮鹽業 노동자인 鹽漢 출신으로서 구한말 일제시기 초반을 거치면서 소금 판매에 기반하여 곡물 및 布의 교역을 통해 대지주로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전통시기의 사족집단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엘리트로서 일제시기 이후 이 지역의 삼림지 개간과 경지 개척을 주관하며 경관 변화를 주도하였다.

운 지역 엘리트로서 이들을 형성시키는 데 작용한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토지 소유는 생태적 환경으로서의 해만 및 그에 대한 적응전략으로서의 염업적 토지 이용에 토대를 둔 것인데, 이와 더불어 이들은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용하고 사회·정치적 변동에 편승함으로써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경관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서 등장하였다.

5. 요약 및 결론

내포 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수 많은 해만들이 분포하여 일찍부터 인간에 의한 대규모 개척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내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海灣이라는 자연지리적 요소로 대면될 수 있으며, 해만이라는 生態的 環境 속에서 인간에 의한 개척의 과정은 이 지역의 地域正體性を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가로림만 일대는 내포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이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이므로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이 갖는 보편성을 검토하기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이전부터 堰田과 堰畝 개간을 중심으로 하여 해만 개척이 전국적으로 활

발했던 반면에 연구 지역의 해만 개간은 조선말기까지도 극히 부진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영구하천이 발달하지 못하여 충분한 담수 공급이 불가능했다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함께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척에 장애로 작용했던 官의 空間으로서의 역사적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적어도 구한말까지 지역 주민들은 해만이라는 공간을 경지화에 유리한 생태적 환경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 점은 중앙의 권세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연구 지역의 해만들에는 경지 개간 대신 자염 생산을 위한 경관과 토지 이용이 지역적 환경에 적합한 적응전략으로서 나타났다.

그 후 일제시기에 이르러 대규모 경지화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다분히 담수 문제의 해결과 직결되어 이루어졌다. 경지 개간에 있어서 외지인들은 주로 대규모 사업을 시행했고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소규모 개간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지인들의 사업 및 당대의 토목 기술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간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동안 주목되는 점은 조선시기의 자염업 종사자들이 거대한 자본가로 등장하고 대토지 소유자로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정치·사회적 변동은 鹽漢의 수익 증대를 가능케 했고 수도권과의 직교역이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 및 전통적 권력 집단인 사족층의 세력이 미약한 점 등은 당대 이들에게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이룸으로써 경제적 지배 집단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이들은 내포 지역의 새로운 자본가와 대지주로서 海灣과 森林地의 경지화를 주관함으로써 일제시기 이후 경관 변화의 사회적 주체가 되었다.

요컨대,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은 조선 시기에는 鹽田化를 주된 방향으로 하였고 일제시기이후 耕地化가 본격화되었다. 광복이후에도 줄곧 경지화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주목되는 것은 염전화는 일제시기에도 그 명맥을 유지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토지 이용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地理的 長期持續性은 소금 생산이 이 지역의 生態的 環境에 가장 적합한 토지 이용 방식이라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해만 개척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시기인데,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연구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적 지배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전통 시기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다.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서 이들 신흥 집단이 성장하는 데 의존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는데 대토지 소유의 배경은 소금 생산이라는 時宜適切한 土地利用에 있었다. 그러한 토지 이용은 역사지리적으로 내포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직응한 최선의 適應戰略이었다. 신흥 지배 집단은 이를 단초로 하여 연구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응하고 정치·사회적 변동에 편승하면서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景觀變化를 주도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경수, 1999, “영산호 주변의 간석지 개간과정과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11, 73-94.
- 남원우, 1988, 16세기 ‘山林川澤’의 折受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유필조, 1996, “17, 18세기 전반 염업 발전과 염분 사점,” 한국사론(서울대 국사학과), 36, 53-103.
- 이문종, 1988,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6, 서울대 지리학과.
- 이준선, 1998, “강릉지역의 저습지 개간과정,” 문화역사지리, 10, 55-68.
- 이태진, 1983, “16세기 연해지역의 언전 개발 - 척신정치의 경제적 배경 일단 -”, 김철준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 전종환, 2002, “역사지리학 연구의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노정 -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역사문화학회지), 5(2), 215-252.
- 정치영, 2000, “지리산지의 농경지 개간,” 문화역사지리, 12(1), 57-76.
- 최영준, 1991, “강화지역의 해안저습지 간척과 경관의 변화”,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30.
- 홍금수, 2001, “18-19세기 交河地域의 토지이용,” 문화역사지리, 13(1), 35-66.